鑑證分析하여 貴否와 所重値를 評價함을 자못 즐겨 하신 것이다。

平時엔 比較的 寡默한 性品이나 百濟文化나 古美術에 語尾가 미칠나치면 벌써 先生의 顔色은 緊張하고 瞳眼은 光彩를 뿜으며 내려꼬이는 歷年과 正確한 考證은 恒時 周圍人을 感銘 肯定케 한다。

實로 先生은 現時點에서 볼때 百濟文化의 保存과 發掘과 其顯揚에 없어서는 안될 貴한 存在라 稱해서 過讚이 아닐줄 안다。앞날에 繼續的인 精進있기를 비는 바이다。

乙巳 三月 日

然齊先生과 다운會

李 夕 湖

도리켜보니 先生에 師事해서 나는 曠日彌久 十年에 가까웁다보니 이때 뜨거운 情懷가 이 胸中에 어지럽도록 맴돈다。

그러나 막상 例日과 같이 先生의 美靑年然한(失禮이나) 모습과 朗朗한 聲咳에 接하고 있노라면 벌써 先生이 이번 慶事로 말미암아 老期에 드신다고는 도무지 느껴지지 않으니 웬일일까?

버림받은 孤兒처럼 冷酷한 구둣발길에 차이어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百濟의 文化에 心傷하시어 오로지 그 百濟文化의 守護와 그 浴光을 위하시어 於焉 風雪의 二十餘年을 樂亦其中하고 오신 然齋先生님 慈父와 같으신 先生의 人格도 人格이러니와 굶임없으시던 研鎖의 體貼하신 百濟의 참되고 자랑스러운 입김에 우리도 가까이 呼應하고 以心傳心이라 할까 謙遜이 말해서 類類相從이라 하여두자 多幸히 이 고장의 知性들은 義務感에서 또는 使命感으로 모인것이 「다운會」였다。

다운會에서는 百濟文化 도로찾기 運動의 一環으로 月一回 百濟文化 巡禮會를 갖는다。이 巡禮會는 그 遠近寒暑를 가리지 않으며 先生님을 모시고 꾸준히 繼續해왔다。

어느날은 暴雪속에 山中을 헤메이기도 했는가하면 어느때는 暗夜에 등불도 없이 오솔길을 밤이 새도록 타박거리기도 했고、또 깊이쌓인 落葉에 미끄러지며 가파른 高山을 넘으려다 지쳐서 俯仰歎息한 일도 記憶에 生生하다。이와같이 苦楚가 막심할때마다 우리는 뒷보다 먼저 還曆에 가까우신 先生의 健康에 걱정의 마음이 아니갈 수가 없었다。그러나 되려 젊은 우리들의 悲鳴을 비웃으시며 때로는 앞지르기를 二㎞、老益壯 하시는 先生을 멀리 黃昏의 山間에 바라보며 『百濟王 萬歲!』를 외쳤다。그럴수록 우리의 收穫도 많았다。臨江寺址發掘에의 動機를 이룬 考證物發見提示(百濟蓮花紋瓦當 및 土製塑佛破片)를 嚆失로、宮南池의 復興을 또 新元寺 境內의 百濟寺址 確認을 그리고 開泰寺의 新羅時代伽藍址를、百濟王城復元鳥瞰圖를、迎日樓의 名稱 및 位置正鵠를、멀리 唐津合德의 百濟農政의 遺跡인 碧骨池復元을 위해서까지 挑戰하여 成果를 거두었다。其外 發見 發掘한 遺物은 數百點으로 列擧할 수 없고 내고장에 오는 各寺址發掘團에는 感謝愼問班編成의 周旋을 잊은일 없었으며 百濟文化巡禮로 가는 곳마다 文化財의 保護狀態를 살핀 結果 依賴、說得、警告를 일삼고 왔으며 其他 이 地域社會의 참된 諸企劃事業에도 많이 參與하여왔다。

於焉 十年을 한결같이 百濟文化를 지켜오신 然齋先生은 바로 扶餘아니 忠南의 恩人이며 참된 愛國者이시다。蜉蝣와 같은 人生에 千年의 文化와 同化하시려는 『百濟王』然齋先生님、비오니 萬壽無疆하옵소서。百濟王 내다보시는 宮苑에는 더지않아 가지각색의 꽃이 피어나고 열매를 맺겠나이다。

乙巳年 初春 於羅城林假寓

然齊先生과 扶餘

李 犧 洙

내가 然齊先生을 처음으로 만나뵙고 가르침을 받게된 것은 至今부터 二

十五年前의 일이다。先生은 當時 扶餘가 日本人들이 所謂扶餘神宮을 造宮하던 初期라고 생각된다。그 事業의 一環으로 大哉閣을 大幅修理하는데 對한 先生의 見解를 나에게 相議해준 것이 契機가 되었다。첫 印象이 매우 부드러웠으나 實은 剛直한 一面이 있었고 어딘지 모르게 好感과 믿음직해 보였던 것이다。

六·二五後에 故鄕에 돌아와 隣近中學校에 있을때 자주 만날 機會가 있었고 만나뵈올적 마다 우리 歷史와 우리 民族에 關한 여러가지 斷片的인 談話를 通하여 先生의 氣風을 그리고 先生의 性格을 올바르게 알게 되었다。先生을 모시고 한여름 三伏을 무릅쓰고 「忠南道誌」編纂關係로 忠南道內 古蹟遺物調査를 다니던일、아침을 굶어가며 食前六十里를 强行軍하던일 等等 先生의 回甲을 맞이하게 되오니 참으로 感懷가 無盡하다!

如何튼 先生은 三十有餘年이나 扶餘에서 平生을 보내시었다。扶餘에 對한 鄕土愛는 참으로 眞摯한 것이다。先生은 百濟文化의 禮讚家이시고 百濟精神의 繼承을 主唱하신다。先生을 百濟狂이라고 한다면 不敬되고 失禮될지 모르나 實際로 先生의 思想의 基調가 아닐 수 없다。

「百濟史는 羅唐軍의 焦土戰으로 灰盡되고 文獻도 新羅를 正統으로 꾸며진 三國史記로는 史的信憑性을 立證하기는 徒勞無功이므로 考古學的 調査、發掘、研究를 通하여 밝혀질 수 있다」고 確言하는 先生은 扶餘의 곳곳에 묻혀있는 地下의 많은 遺物이 扶博으로 蒐集되고 整理되었음은 偶然한 事實이 아니다。百濟佛의 破片 하나가 佛像系譜를 顚倒하는가 하면 金石文 하나가 百濟史的 價値를 再認識케하고 한便 逸失의 危機에서 救出되고 保存된 事例는 참으로 내가 目睹한것만도 枚擧할 수 없는 程度이다。

또 先生은 淸貧한 本性과 潔白한 性稟은 學者로서의 師表라 아니할 수 없다。自信이 있는 研究結果에 對하여는 一毫의 讓步도 없으시고 固執하신다。아마 그러한 性質은 先生의 先代 三學士의 한분이신 洪翼漢先生의 血統이 그대로 遺傳된듯한 節節한 氣質이기도 하다。畢生을 두고 生을 바치신 先生의 業績은 이 扶餘天地에 움이 트고 가꾸워져 파란 百濟하늘에 다사로운 햇빛을 맞으며 成長하여 先生의 後繼를 누가 맡을것인가를 생각하니 답답한 마음이 붓갈바를 모르겠다。

先生은 確實히 白紙같은 百濟의 서울 扶餘에 새로운 하나의 보리알이 아닐 수 없다。

(一九六五、三、八)

然齊 洪思俊 先生의 華甲을 맞이하여

金 永 培

歲月의 흐름이란 이다지도 빠른것인지 어느듯 然齊先生의 華甲이 돌아왔군요、白髮 하나 없으시고 三十代의 精力을 凌駕하시는 氣品을 간직하신채 壽筵을 맞으시니 錦上添花의 慶事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忌酒好甘하시는 先生께서 어떻게 따끈한 獻酒一杯를 잘 잡수셨는지 못내 궁금합니다。百濟文化의 優秀性에 對하여 該博하신 洞察力은 他의 追從을 不許하고 百濟文化의 探究宣揚에 全力하신 偉功은 길이 後世에 등불이 되겠읍니다。『百濟文化 되찾기運動』『다운會』等을 主宰하시며 알알이 쌓아올린 象牙塔은 길이 保全될 것입니다。언젠가 나에게 주신 敎示가 운데서 「新羅의 工技는 出於百濟」라고 하신 한 句節이 되살아납니다。이같이 百濟文化를 아끼시고 讚揚하시는데는 참으로 百濟의 넋이 넘쳐 흐르는 것 같읍니다。오늘 先生의 華甲을 맞이하여 더욱 느껴지는 것은 二十有星霜을 先生과 같이 그 길에서 苦樂을 겪은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가꾸어주시고 敎導하여주신 先生의 厚恩에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人生이란 生老病死의 四苦海를 반드시 건너야하는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만 이러한 苦海를 건느는 동안에 무엇인가 하나 塵世에 남기는 것이 있어야 한다면 先生께서 남기신 百濟文化에 對한 該博하신 高見은 길이 後學들의 灯불이 될것입니다。扶蘇山 푸른 솔이 자라서 하늘에 닿고 白江물이 넘치고 흘러서 大海가 이루어지도록 長壽하시고 더욱 精進이 있으